

1. 제안 배경

◆ 글로벌 유일의 기술 성공

당사 기술은 국내 대기업, 국가 연구기관, 글로벌 대기업 및 전 세계 주요 국가들조차 기술적 한계로 모두 실패했던 난제였습니다. 이를 지난 20여 년간의 개발과 현장 시행착오를 거쳐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며, 기술적 완성도를 구축했습니다.

◆ 글로벌 검증 완료

수출 및 판매 실적 확보, 국가 공인기관 시험평가 통과는 물론, 글로벌 기업 제품 테스트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전문기관으로부터 '탄소배출권' 확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해외 자본의 기술 매각 제안 및 국익 유출 위기

특히, 본 제품을 직접 테스트하고 실제로 사용해 본 중국계 관련 기업으로부터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기술 매각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안자는 국익을 위해 국내 안착을 열망하나, 창업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와 행정 장벽에 막혀 있습니다. 이대로 지원 적기를 놓친다면 전 세계가 탐내는 국가적 혁신 기술을 해외 자본에 고스란히 빼앗기는 독점권 유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2. 제안 목적

이에 범국가적 컨트롤타워인 본 위원회에 개별 특혜가 아닌, 세계가 실패하고 해외 실사용 기업이 탐내는 국산 원천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가 대표 자산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 통로(패스트트랙)' 구축을 건의드립니다.

3. 기술 핵심 및 기존 열분해 기술 극복

◆ 기존 한계

전 세계가 의존하는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은 고비용·저효율 구조이며, 특히 분리가 불가능한 폐플라스틱은 대부분 매립·소각되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함에도 대안이 없어 비효율적인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 당사 혁신성

본인이 개발한 기술은 처리가 극히 곤란한 [생활 폐기물, 산업용 폐플라스틱, 폐어망, 농촌 폐비닐, 폐전선]등 각종 폐기물을 녹여 만든 원료를 사용하여 (목재와 물성이 99% 동일)한 동시에, 목재 특유의 내구성·내수성 한계를 극복한 목재대체품(수출용컨테이너 바닥재, 건축코팅합판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 처리문제 해결 + 탄소배출저감 + 산림보호 + 자원순환경제 구축이라는 네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4. 위원회 정책 건의 사항

◆ '탄소중립 혁신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건의

글로벌 국가·기업들이 실패한 난제를 해결하고 해외 실사용 기업의 매각 제안까지 받을 만큼 가치가 입증된 민간 원천 기술이 행정 장벽에 묻히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기술력을 심사하여 중기부(초격차 스타트업 등) 및 환경부의 핵심 지원 프로그램과 직통 연계해 주는 '정책적 패스트트랙 표준 모델'을 제도화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국산 생태계 보호

폐기물은 쓰레기가 아니라 미래자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친환경 목재대체 기술을 국가적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설비 분야에서 국내 자본 중심의 독자적 탄소중립 생산라인 성과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 지정을 요청드립니다.

※ 첨부자료: 컨테이너바닥재/건축합판 사업계획서,머스크 테스트자료.
건축합판 현장시공사진, 수출신용장)
그 외 다수 자료 있음.